

전기료 계절·시간별로 차등화

- 여름·겨울엔 비싸고
- 심야·새벽시간엔 저렴
- 7월 선택요금제 시범 도입

7월부터 계절별·시간대별로 다른 요율이 적용되는 전기요금제가 도입된다.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21일 계절별·시간대별로 전기요금이 차등화 된 주택용 전기요금제를 7월부터 시범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누진율이 적용되는 방식이다.

새로 도입되는 차등요금제는 전력 수요가 몰리는 여름과 겨울, 하루 중에서 오전 10~12시, 오후 4~6시 등에는 비싼 요율을 적용하고, 반대로 심야나 새벽 시간대에는 평소보다 낮은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여름과 겨울의 특정 시간대에만 수요가 몰려, 기존 발전설비로는 공급이 달리는 문제를 풀어보자는 취지다.

다만 전체 주택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전자식 계량기(스마트미터)가 보급된 가구 가운데 기존 요금제와 새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새 요금제를 적용하려면 시간대별로 사용량을 체크할 수 있어야 하는데 기존 기계식 계량기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까지 스마트미터는 전국 89만 가구에 보급됐고, 올해 75만 가구에 추가 보급될 예정이다. 보급형 스마트미터의 가격은 2만 원 수준으로 한국전력 공사가 무상으로 교체해 주고 있다.

전기사용량 22개월째 연속 상승

한파와 경기회복 여파로 올해 1월 전기 수요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8.6% 증가하며 22개월 연속 상승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17일 1월 전력판매량이 총 431억1700만 kWh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특히 산업용 전기 수요가 크게 늘어 전년 동월 대비 12% 늘어난 217억6700만 kWh가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달 전체 전력 판매량의 50.5%에 이르는 수치로 특히 기계장비(24.9%) 철강(18.5%) 자동차(18.1%) 반도체(15.1%) 등 전력을 많이 쓰는 업종의 전기 수요가 크게 증가한 것이다.

교육과 주택, 일반 부문 전력 판매도 각각 전년 동월대비 12.6%, 3.7%, 8.2%씩 늘었다. 이는 주로 난방용 전기 수요 때문으로, 지난달 평균 기온은 지난해 같은 때보다 평균 3도나 낮아 관련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재생 에너지산업 '쑥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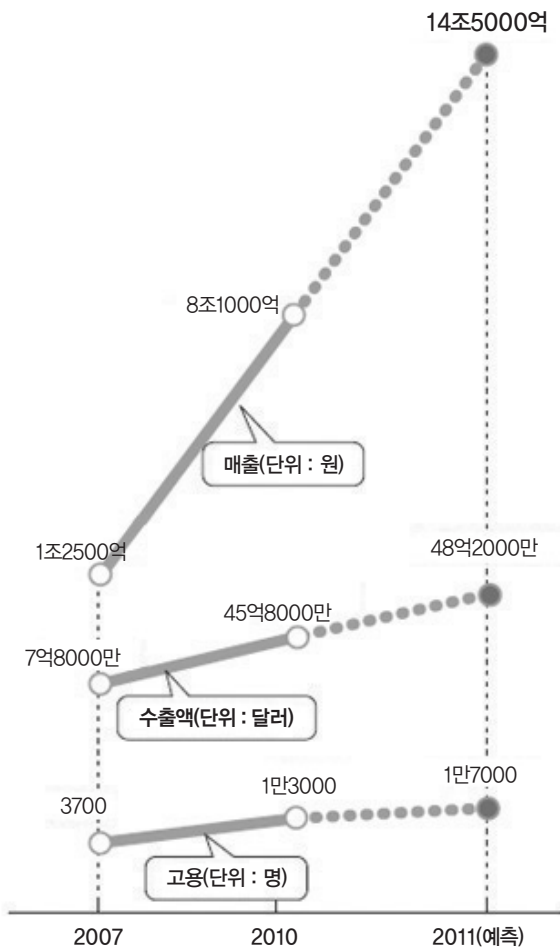
- 3년새 매출 6.5배 늘어
- 태양광 부문 13배 증가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산업 규모가 최근 3년간 6배가량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성장세는 올해에도 계속돼 매출과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두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14일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체 215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지난 2007년 1조 2500억 원이었던 총 매출이 2010년엔 8조 1000억 원으로 6.5배 늘어났으며, 같은 기간 수출액은 7억 8000만 달러에서 45억 8000만 달러로 5.9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민간투자액과 고용인원은 각각 7200억 원에서 3조 5600억 원으로 5배, 3700명에서 1만 3000명으로 3.6배 증가했다. 관련 업체 수는 100개에

신재생에너지산업 성장 추이

자료: 지식경제부



서 215개로 두 배 남짓 늘었다.

분야별로는 태양광 부문의 매출과 수출액이 각각 13.4배, 21.4배 급증해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이번 전수조사 대상 업종은 태양광 이외에도 풍력, 바이오,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총 6개 분야이다.

조사에 응답한 업체들은 올해 관련 시장 전망도 밝게 내다봤다. 조사 대상인 215개 업체의 전망치를 모두 더한 결과, 지난해와 견줘 고용인원은 28% 증가한 1만 7000명, 매출액은 78% 늘어난 14조 5000억 원으로 전망됐고, 수출액(84억 2000만 달러)과 민간투자금액(4조 1000억 원)도 각각 84%, 16%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MB,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 2년 늦출 듯

- 2013년 → 2015년 연기 전망



이명박 대통령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유연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2013년 1월로 예정됐던 도입 시기가 2015년으로 2년 가량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린 전도사'를 자처하며 강력하게 녹색성장 드라이브를 걸어온 이 대통령이

무리하게 명분에 집착하는 대신 실리를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7일 라디오 연설에서 산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적절한 시점에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할 예정이며, 정부는 국제 동향과 산업 경쟁력을 감안해 유연하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지금까지의 기조와는 다소 상반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배출권 거래제는(규제가 아니라) 하나의 산업이다. 경제성장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며 2013년 도입에 무게를 뒀다. 환경부도 지난달까지 배출권 거래제는 2013년까지 반드시 도입될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밝혀 왔다.

KAIST 전기차 기술, 미국에 처음으로 수출

- 무선충전 전기버스 60대...
보스톤 로건공항 사용

KAIST(한국과학기술원)의 온라인 전기자동차(OLEV) 기술이 전기차 기술의 본고장인 미국으로 수출된다.

다보스포럼에 참석했던 서남표 KAIST 총장은 미국

보스톤 로건공항을 관할하는 매스포트 이사회가 KAIST가 개발한 전기자동차 기술을 사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KAIST는 도로에 전기공급장치를 깔아 주행 중에도 무선으로 충전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온라인 전기자동차를 개발했다. 이 온라인 전기차는 지난해 연말 타임지에 의해 '2010년 세계 최고 발명품 50'에 선정된 바 있다.

온라인 전기버스는 대당 가격이 6~7억 원이어서 전체 프로젝트 규모는 약 420억 원 가량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전기버스 조립은 모두 미국에서 이뤄질 예정이어서, KAIST는 기술 라이선스로만 받는다고 서 총장은 설명했다. KAIST는 이번 성과는 향후 미국의 다른 대도시나 공항, 환경오염에 민감한 유럽 등지로의 기술 수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미국 유타주 파크시티와는 이미 전기자동차 기술 수출 문제를 협의 중이다.

국내에서는 서울대공원에 무선충전 전기버스 1대를 설치해 시범 운영 중이다.

